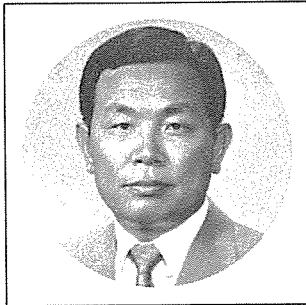


해양연구소

“ 綜合 海洋연구소
獨立기반 마련 ”



朴 炳 權 所長

새로운 해양시대의 기틀이 될 해양개발기본법 시행령의 발효로 해양연구소는 도약을 할 수 있는 희망찬 경오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해는 해양연구소가 남극에서 수행한 과학 활동을 인정받아 세계에서 23번째로 남극조약협 의당사국 지위를 획득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한 것과 같은 외교적 성과로 남극과학기지(세종기지)를 주관, 운영하는 해양연구소로서는 매우 의의 깊은 한해였다.

국제적으로는 200헤리 경제수역선포의 일반화로 자원민족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신해양질서가 형성되고 해양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각국의 경쟁이 첨예화되고 있는 이때에 15개 정부부처간에 중복, 경합된 해양관련업무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해양개발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에서 관장함에 따라 이 실무위원회에서는 해양연구소를 국책 종합해양연구소로 독립,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해양과학정책수립을 위한 싱크탱크

더우기 이 실무위원회에서는 해양연구소가 ① 해양과학정책 수립을 위한 싱크 탱크 역할 ② 국가 해양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 응용연구 수행 ③ 해양에 관한 종합적 조사연구 및 이용기술의 개발과 그 성과의 보급 ④ 국내외 타연구기관, 대학 및 관련기관과 공동연구, 장비

이용 및 기술훈련 ⑤ 남극과학기지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로 했다. 이는 해양연구소 중·장기발전계획과 부합되므로 해양연구소는 금년부터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연구시설 확충 및 최신장비 도입, 우수연구인력 확보, 연구능력향상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연구사업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연구로는 하이테크 원자재인 망간, 니켈, 코발트, 구리 등의 장기 안정 공급원 확보와 함께 태평양 공해상에 남한 면적(약 7.5만km²)크기의 단독광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는 1990년에서 1992년까지 1단계로 유망한 개발광구지역(50만 km²)에 대한 광역탐사를 완료하고 개발광구를 선정하기 위해 미국 국립지질조사소, 프랑스 국립해양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해양환경 오염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해역 종합해양자원도 작성연구, 해난재해예보시스템 개발연구, 생리활성물질 개발연구, 고급어종 증·양식기술 개발연구 등을 통해 국토개발사업에 따른 연안역 주민의 피해를 극소화 하고 양식업을 이용한 국민식생활에도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남극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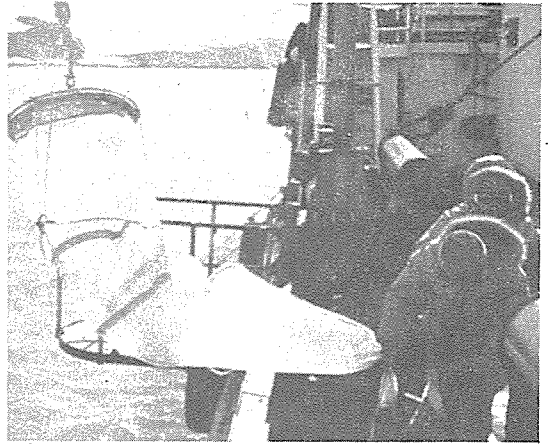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남극조약협약의 당사국이므로 금년부터는 남극관련 국제회의에서 발언권이 강화된다. 그러므로 남극조약의 이행에도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고 남극환경오염 문제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남극기지 운영과 연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금까지 1, 2차 남극연구단이 수행한 연구경험을 토대로 조사지역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남극연구를 본 궤도에 진입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종합해양조사선 건조 및 운영

국내 최초의 유인잠수정 "해양350"을 보유하고 있는 해양연구소는 250톤급 잠수정 모선을 금년 8월경 완공하게 된다. 이 모선이 완공되면 연근해 해양, 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를 통해 수중생물, 해저퇴적물의 채집 및 관찰, 해양오염 및 폐기물 특성조사, 해양구조물 설치·보수 등과 국가보안업무 지원사업에 유용하게 운용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연근해 및 천해조사나 탐사기술은 어느정도 보유하고 있으나 원양이나 심해저를 대상으로 하는 탐사는 장비, 기술, 경험 등에서 크게 미흡한 실정이며 장비는 대부분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종합해양조사선 건조사업은 그 규모가 국제톤수 1150톤, 건조 및 탐사장비 도입에 41억엔이 투입되는 대형조사선으로 금년에 건조작업에 착수하



게 된다.

이 조사선이 완공되면 광역종합해양조사가 가능해지므로 해양특성조사, 심해저탐사활동을 통한 국제공동연구를 함으로써 연구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따라서 건조 및 완공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연구소는 8척의 해양조사선을 보유하게 되므로 현재 산재되어 있는 조사선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육상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조사선 전용정박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건설사업

연구시설 확충을 위해 현재 진행중인 공학연구동의 수리모형시설은 내년초에 완공되며 금년부터 800여평 규모의 극지연구동과 과학연구동을 건설하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 남해안에 조사선 지원기지를 1991년까지 건설하게 된다. 이 기지에는 잠수정격납고 및 정비공과 임해실험동, 임해연구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해양연구소는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확충을 통해 해양연구의 본산지로서 새로운 면모를 갖출 계획이다.

해양과학은 종합과학 혹은 거대과학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해양연구소가 산업계나 학계 등 관련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명실공히 국제수준의 연구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그 기반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